



이후에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쏟아졌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국가 등록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잇따른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도의 2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연간 0.71% 상승한 것에 비해 오름폭이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광역시·도 중 세종시의 집값이 4.2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이 3.64%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서울은 8·2 대책 등의 집중 표적이 됐지만 2016년의 각각 0.79%, 3.64%보다 되레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여전히 몰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됐다.

## 암호화폐 열풍

### ■ ‘비트코인’ 등장

비트코인은 컴퓨터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 1월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데이터를 일종의 묶음(블록) 형식으로 거래 참여자의 모든 컴퓨터에 분산 저장한다. 참여자들에게 분산 보관돼 있는 데이터와 대조해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총량이 유한하고 채굴량은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 금에 비유되곤 한다. 2145년까지 모두 2천100만 비트코인(BTC)이 발행될 예정이다.

### ■ 비트코인 가격 폭등…정부 규제 나섰지만 신뢰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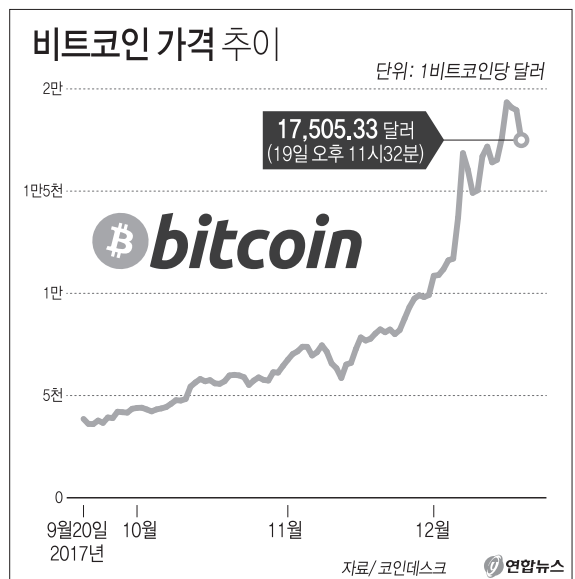
2017년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2013년 수준을 넘어섰다. 1비트코인당 가격은 1월에 1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급등세를 이어가 11월 말에는 일부 거래소에서 1만 달러(약 1천83만원)를 돌파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12월 들어 2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국내에는 2013년 7월에 설립된 코빗을 비롯해 빙빗, 코인원 등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지갑이 개설된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인기가 높았다. 이더리움은 러시아 이민자 출신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2014년에 개발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보다 한층 더 진화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하고 투기성이 커지자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법령이 없는 데다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혼신만 가중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실명 확인, 미성년자 거래금지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해 12월 13일 발표했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했다. 암호화폐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관세청의 한 직원이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유출했고 이것이 온라인에 유포돼 빛이 바랬다. 또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닛은 2차례 해킹을 당해 손실을 보고 결국 파산했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해킹으로 거래소가 파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광풍에 가까운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전통적인 화폐 범주 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암호화폐가 “법적 지급수단을 갖지 못하고 화폐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면서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락에 대해 “투기적인 성격이 더해져 과열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 ■ 정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정부는 12월 28일 발표한 추가 대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가상계좌의 사용을 금지하고 본인이 확인된 계좌로만 입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의 거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암호화폐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기로 했다.

수사당국은 ‘2018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의 온라인 광고가 포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 12월 28일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모습.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함으로써 정책 신뢰도에 흠집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 30일부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됐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가 동일할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자가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엔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없으면 해당 거래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실명확인제로 인한 시장의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에다 미국 달러화 시세와 연동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테더 코인’이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1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 K팝 한류 주자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은 2017년 ‘팝의 성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2012년 사이 이후 가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두 가수 모두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것은 아니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버락스타’가 됐다. 이에 비해 방탄소년단은 2013년 데뷔 이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키운 음악적 공감기 팬덤 ‘아미(ARMY)’를 통해 폭발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와 싱글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버전으로 미